

## 남창골자연관찰로



남창골 자연관찰로는 자연의 세계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발견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조성된 곳입니다. 남창계곡에 사는 물 속 친구들과 야생화, 버섯, 나무, 새와 곤충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로의 길이는 약1km 정도이고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① 국립공원이란?
- ② 여긴 왜 나무가 없죠?
- ③ 와! 여긴 나무가 많네요!
- ④ 새도 쉬어가는 고개, 장성새재
- ⑤ 숲속 놀이마당
- ⑥ 조릿대이야기
- ⑦ 버섯이야기
- ⑧ 숲이야기
- ⑨ 풀이 많아요!
- ⑩ 고로쇠이야기
- ⑪ 땅이 짙찍짙찍해요!
- ⑫ 와! 시원한 계곡이다~!

## 내장산국립공원은...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의 내장산과 전남 장성의 백암산, 입암산 이렇게 3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암산과 입암산은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81,715km<sup>2</sup>(전남지역면적 34,211km<sup>2</sup>)에 이르며 20개 국립공원(1971.11.17.)중 8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을이면 온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이곳 백암산과 입암산은 환향이 설법을 듣고 환생하여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백양사와 호국의 성지이자 호남의 3대 산성으로 손꼽히는 입암산성 등 풍부한 역사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바위가 마치 갓을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이름 붙여진 갓바위, 멀리서 보면 마치 흰 학이 날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백학봉 등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 국립공원해설프로그램이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일 정	장 소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해설	연중, 매일 09:00~17:30 1시간 30분 소요	백양골 자연관찰로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연중, 매일 09:00~17:30 1시간 30분 소요	남창골 자연관찰로
천년고찰 백양사 사찰문화	연중, 매일 09:00~18:00 1시간 소요	백양사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연중, 사전문의 10:00~16:00 6시간 소요	입암산일원
찾아가는 국립공원 교실	연중, 사전문의 1시간 소요	유관기관 및 학교

국립공원해설프로그램을 신청하세요!

참가방법 : 선착순예약

- 전 화 : 061-392-7288
- 인터넷 : <http://visit.knps.or.kr>
- 참가인원 : 1회당 20명 이내

##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52-1  
Tel : 061-392-7288  
홈페이지 : <http://naejang.knps.or.kr>

Nature. Our Future!



## 자연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있는 남창골

가을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은 내장산, 백암산, 입암산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자연과 역사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입암산(654m)은 남창계곡의 시원한 바람과 물줄기가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어 여름에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바위가 마치 갓을 쓴 것 같은 모습의 갓바위(632m)와 호남의 대표적인 호국성지인 입암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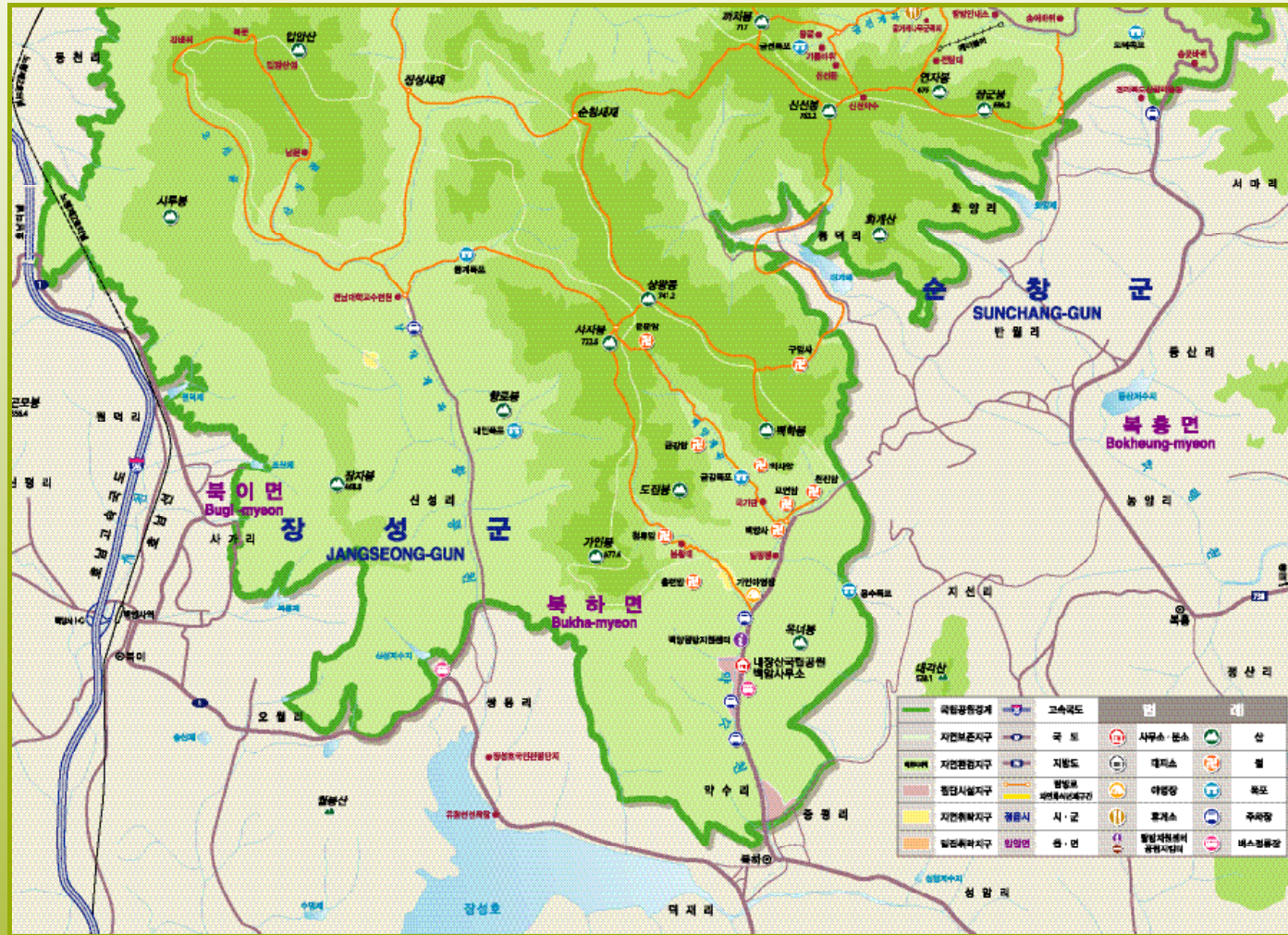
# 국립공원이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1967년 지리산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 육상면적의 3.7%가 국립공원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문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19개 국립공원(가야산, 경주,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태안해안, 한려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전은 '자연보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세계일류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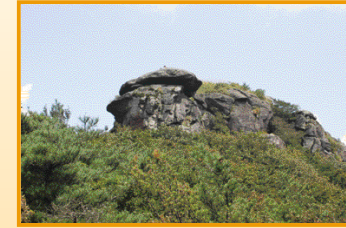


**제1코스** (당일종주코스, 약 9.2 km, 6시간) : 백양사 - 약사암 - 백학봉 - 상왕봉 - 사자봉 - 가인마을

**제2코스** (몽계폭포코스, 약 5.5 km, 3시간 30분) : 백양사 - 운문암 - 능선사거리 - 몽계폭포 - 전남대수련원

**제3코스** (남창코스, 약 10.3 km, 4시간) : 전남대수련원 - 새재갈림길 - 입암산성 갈림길 - 남문 - 북문 - 갓바위 - 은선동계곡 - 전남대수련원

**제4코스** (장성새재코스, 약 6.6 km, 3시간) : 전남대수련원 - 새재갈림길 - 장성새재 - 입암공원지키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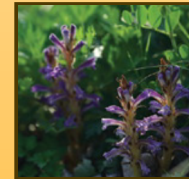
갓바위(632m)

입암산의 주요봉우리인 갓바위는 바위가 마치 갓을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갓바위 정상에서 보이는 경관은 호남평야와 내장산의 주봉들, 인근의 병풍산, 방장산, 더 멀리서는 무등산이 장관을 이루며 서해바다까지 보이는 시원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남창계곡

내장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계곡입니다. 계곡 여기저기에 작은 폭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선동계곡, 자하동계곡, 하곡동계곡, 산성골, 새재계곡, 내인골 등 6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백양더부살이

백암산 백양사 부근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백양이란 이름이 붙여진 기생식물로 썩 뿌리에 자신의 뿌리를 내려 숙의 양분을 먹고 삽니다. 일제시대 때 처음 발견된 이후 7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그 이후 다시 발견된 우리나라 멸종위기식물입니다.



얼레지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붉을 알리는 대표적인 야생화입니다. '가재무릇'이라고도 부르며 잎 표면에 자주색의 얼룩무늬가 있어 '얼레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쇠나무

단풍나무과로 단풍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고로쇠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고로쇠 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른 봄 남창골에서는 고로쇠 축제를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몽계폭포

하곡동계곡의 울창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문과 같은 바위가 나오는데, 하곡석문이라는 글자가 적혀있고, 석문을 들어서면 나타나는 곳이 몽계폭포입니다.



입암산성(사적 제384호)

남창계곡을 따라 갓바위를 향해 걷다보면 웅장하게 서 있는 입암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호국정신인 입암산성은 삼국시대 때 축성된 산성으로 고려(고종 43년)때 몽고군의 침략과 임진왜란(선조26년)때 왜군에 맞서 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적상산성, 금성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로 현재는 남문과 일부 성벽만이 옛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진순의비

윤진은 1597년 정유재란(선조 30년) 시 왜군이 호남을 침략했을 때 의병 100여명과 함께 입암산성을 지키다 장렬히 순절하였습니다. 그 후, 후세 사람들이 윤진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윤진순의비(영조 17년)를 세웠습니다.



진노랑상사화

내장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잎과 꽃이 따로 피는 상사화의 한 종류입니다. 국내 고유 식물이자 환경부 지정 희귀식물 보호종으로 주로 계곡 주변에 무리지어 자라고 꽃은 7월말에서 8월초에 걸쳐 진한 노란색으로 피어납니다.



비단벌레

내장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몸길이가 3~4cm에 전체적으로 빛나는 녹색 계열의 금속성 광택을 띠고 있습니다. 등 쪽에는 붉은색으로 된 2개의 줄무늬가 비단처럼 온 몸을 감싸고 있으며 주로 느티나무와 팽나무 군락지에서 서식합니다.